

지역발전 견인 대형 국책사업 발굴

전주시, 특화된 문화·관광과 도시재생 등

전주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한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해 대선공약화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기로 했다.

특히 시는 전주만의 특화된 문화·관광과 도시재생, 신산업·일자리 등 핵심분야 위주의 국책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 및 대선 유력후보자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발전을 이끌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주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시정운영 관련 5대 추진전략 및 기획조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밝혔다.

5대 추진전략은 △역동적인 시정구축을 위한 역량 집중 △창의적인 시정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원편의 행정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역동적인 시정구축을 위해 올해 132개 핵심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일정을 정하고, 주요 현안사업 중 추진이 미흡한 사업은 현안과제로 분리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시정 100대 핵심과제 및 주요현안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에 집중해 대선공약화 하는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대규모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에도 힘을 계획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생활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들이 전주의 미래를 담보하는 유무형의 기록유산이 될 수 있도록 전주관련 각종 기록물을 수집해 전주정신의 숲 설립을 추진하는 등 창의적인 시정구축을 위한 기반도 닦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록으로 나누는 전주이야기 연재 △기증캠페인 및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 △전주관련 민간기록물 기획전시 등 전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기초를 다질 계획이다.

시는 또, 책 읽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대규모 독서문화축제를 적극 유치하고, 인문학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일상의 문화 인문학과 나눔 인문학, 온·다라 인문학 등을 통해 시민들이 1년 내내 인문학을 향유토록 할 방침이다.

전주를 창의·행복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창의인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환경개선과 혁신교육 특구사업,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스포츠험일 아레나 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7년 6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100만 명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제, 선거연합정당 등 '대선투쟁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교육 바꾸치사업 등도 적극 추진기로 했다.

또한 시는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권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데도 힘을 계획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전주시 인권센터 추진방향 논의·결정,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아카데미 운영, 체계적인 인권위원회 운영 등 사람중심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권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인권공동사업 추진으로 지방정부간 인권네트워크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서부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오늘 개통

도교육청육교인근 정읍·김제 방면 등 25개 노선

전북도교육청 앞 육교 인근에 설치된 전주시 서부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8일 개통된다.

서부시외버스 간이정류소에는 부안과 정읍, 김제, 고창, 광주, 영광, 목포 방면 25개 노선이 하루 평균 196회씩 운행해,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효천지구 등 서부권 주민들의 시외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첫차를 시작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인근 대로변(완산구 옥고개로 343)에 위치한 서부시외버스(효자동) 간이정류소가 전면 운영된다. 이로써, 서부 신시가지 개발 이후 상주인구가 증가하면서 지난 2005년부터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의 신설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시는 간이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

의 편의를 위해 전주지역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캠프카와 카페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매표소를 설치했다. '일상을 여행처럼, 인생을 여행처럼'을 주제로 설치된 이 매표소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삶의 여유와 즐거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조성됐다.

시는 전북도청 방향 홍산로에서 옥고개로 정읍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삼거리에서 U턴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위해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결합한 협포식 횡단보도도 설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서부(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설치하기 위해 시외·시내버스 업체와 택시업체, 관할 경찰서, 교통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10년간에 걸친 이해와 설득 과정을 거쳐, 지난 2015년 11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끝에 전라북도교육청 인근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를 설치기로 최종 확정했다.

시는 간이정류소 설치를 위해 지난해 5월까지 유관기관과 운수업체, 인근민원인 등 협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7월부터 설치 공사에 착수, 지난달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시는 서부(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운영으로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현재 조성중인 효천지구 등 전주시 서부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부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개통되면서 전주에 설치된 정류소는 덕진동·인후동·완산동·전동·노송동·전주대·호남제일문·혁신도시정류소를 포함한 총 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영재기자

만취해 흥기 들고 다니며 사람들 위협한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1단독 강두래 판사는

7일 만취상태로 흥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위협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간의 보호관찰과 알코올중독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최씨는 2016년 7월 28일 오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거리를 식각을 든 상태로 배회하며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이날 만취상태로 119에 전화를 걸어 부모를 죽여 버리고 싶다고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알코올중독 문제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배회한 이 사건 범죄 내용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덕진공원 생태문화공원으로 명소화

전주시가 연화교 재가설과 대표 브랜드 개발을 통해 덕진공원을 전국민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문화공원으로 명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7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공원을 전북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덕진공원 관광브랜드 개발 및 덕진공원 연화교 디자인'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덕진공원 브랜드개발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화교 재가설 디자인(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덕진연못에 위치한 연화교는 덕진호수를 가로지르는 교량(길이=260m, 폭=1.2m, 높이=16.0m)으로, 그간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만개한 연꽃과 연잎 사이를 걸으면서 연꽃 체험 등 덕진호수의 매력적인 경관의 요소들을 다른 눈높이로 감상할 수 있어 사랑을 받

아왔다.

하지만 올해로 연화교가 개설된 지 37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탈색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지 못하고 지난 2015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시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거쳐 덕진연못의 상징물로 연화교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시는 전주와 덕진공원을 상징하는 요소를 발굴해 새로 개설되는 연화교 디자인에 접목,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 디자인(안) 선정은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덕진공원을 상징할 Brand Identity 디자인을 개발하고, 덕진공원을 명소화할 수 있는 슬로건과 브랜드 네임 등을 결정해 향후 덕진공원 관광명소화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재기자

전북지방경찰청, 베스트 보안·외사경찰 제도 시행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연)은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경찰 육성을 위해 '베스트 보안·외사경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처음 도입했던 베스트 보안·외사경찰 선발 제도는 매 분기마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며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동료 직원들에게 추천 받

아 선발하는 제도이다.

2016년 4/4분기 베스트 보안·외사경찰로는 보안분야에는 익산경찰서 보안계 최관철 경위가 보안철보 수집실적 우수 유공으로 선정되었고, 외사분야에는 군산경찰서 외사계 유영식 경감이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 유공을 인정받아 선정 되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제값 받는 농업실현을 위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2017년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매년 가격등락 폭이 커서 농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농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양파 및 가을배추 등이다. 농산물 가격 등락이 적고, 시장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곡물류와 과수류, 축산물, 특작, 화훼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재기자

신청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소재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계통출하를 확인받은 농업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부터 1만㎡(3000평) 이내의 농지에 양파 및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중 양파 재배농가(배추는 별도신청)는 오는 3월 3일까지 농지소재지 등 주민센터 또는 지역농협, 전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